저장된 페이지 보기

국내 중개기관 실태(M&A 시대)

[매일경제] 1996-03-12 47면 기획,연재 4496자

◎"인수부터 사후관리 우리가 책임"/증권사19개사 인가받아 움직임 활발/전문기관실무경험 갖춘 소수정예 집결/종금사90년부터 취급 20건 성사시켜"M&A(기업인수·합병)관련업무는 우리에게 맡겨라".

최근들어 M&A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인수 및 매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.

이들 기관은 인수대상 회사물색부터 매수및 방어전략 조언은 물론 인수자금조달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표방하고 있다.

M&A업무는 매수기업 선정, 주식평가와 적정가격 산정, 자금조달 등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므로 법률적 지식과 기업에 대한 현장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기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현재 국내에서 M&A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증권사 M&A부티크(전문중개기관) 종합금융사 회계법인 법률회사 은행 컨설팅회사 등이다.

소유구조 분석을 통한 매수대상 물색과 재무구조분석등에는 증권사들이 강하며 인수자금조달과 향후 관리에 대한 서비스는 종합금융사 및 컨설팅회사가, 철저한 비밀이 요구되는 인수 및 매도기업의 중개는 M&A부티크가 강한 면모를 보인다.

또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회계법인이, 법률문제는 주로 법률회사가 담당하고 있다.

○증권회사
가장 대표적인 M&A기관인 증권사들은 재경원으로부터 기업인수.합병주선업무 겸업인가를 받아 M&A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2월말 현재 M&A 겸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대우 동서 LG 대신 쌍용 제일 서울 현대 동양삼성 고려 선경 한신 보람 산업 신영 한양 한일 대유 등 19개사다.

동서 대신증권 등 3개사가 지난 91년 증권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겸업인가를 받았으나 실적은 부진한 편이었다. 최근들어 M&A시장이 수년내에 증권사의 주요 수익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

이중 최근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는 서울증권. 서울증권은 해외에서 M&A를 연구하고 돌아온 갈정웅상무를 중심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지난해 4월 발족해 금융기관 전자부품사 등 4건의 대형 M&A를 성사시켰다.

서울증권은 M&A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중개수수료중 20-30%를 리베이트로 주는 '파인더스피'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사내는 물론 일반기업 창업투자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.

○전문 중개기관
M&A전문기관은 증권사나 종금사처럼 기업인수중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다.

대부분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M&A중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전문가집단이란 뜻에서 「부티크」로 불린다. 전문기관에서 활동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증권사나 종금사 대기업등에서 다년간 M&A업무를 담당했던 인재들이나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.

지난 90년에 화이스트 인베스트먼트(FEI)와 한국종합기술금융의 자회사인 KTB컨설팅이 전문중개기관으로 설립돼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인 수주선업무를 담당했다.

지난해 1월 「한국M&A」를 필두로 전문중개기관이 잇따라 설립돼 현재는 10여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. 한국M&A는 삼성물산 한국종합금융에서 근무했던 권성문사장이 설립한 회사로 한솔그룹의 옥소리 광림전자한국마벨 인수, 신원의 광명전기인수 등 17건의 중개를 성사시키며 가장대표적인 전문중개기관으로 부상했다.

또 올 1월 설립된 유나이티드M&A는 국민은행 국민기술금융 신진창업투자 등에서 근무했던 정대주(42)사장등이 진영월드 풍원제지등의 인수중개를 성사시킨 실적을 내세우며 전문중개기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있다. 또 지난해까지 기업매수전략 연구소(CASI)운영하던 성보경(36) 소장은 지난해 말 「프론티어 M&A」를 새로 설립